

재가노인 단독세대의 실내디자인 지원성에 관한 요구

- 광주광역시 노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lderly Households' Needs for Affordance of Interior Design

문희정*

Moon, Hee-Jeong

김미희**

Kim, Mi-Hee

Abstract

As the advent of an aging society, housing for the elderly has been of great concern. Because the majority of the elderly prefers living in their own familiar homes rather than moving to new ones,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ways use and maintenance of the existing houses from the viewpoint of their independent living. The data was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the SPSS 10.0 for Windows. The findings from the study were: Needs for Affordance of interior design(AID) were required slightly above the average. Among the items of AID, physiological maintenance was the most demanding, and social facilitation, behavioral facilitation, and perceptual maintenance were sequentially followed in the level of needs. The elem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housing environment plans for the elderly household are: (a) use of slip-proof tiles for the floor of the bathroom, (b) installation of safety bars in the bathroom, and (c) installation of emergency buttons. It also turned out that educational levels and health status we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on the needs for AID.

Keywords : Affordance of Interior Design, physiological maintenance, social facilitation, behavioral facilitation, perceptual maintenance.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주거환경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활영역이 축소되어 주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며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노인들의 주거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Golant, 1982).

최근 들어 노인을 위한 시설주거나 실버타운의 건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노인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보

다 더 오래 살고 행복해하고 만족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은 노인을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원칙을 강화시키고 있다(Kahn & Kamerman, 1978).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고 따라서 주택에서 경험하는 안전사고도 증가하게 된다. 중·장년층일 때는 불편하게 느끼지 못했던 주택의 구조나 규모, 시설, 그리고 생활용품들이 더 이상 편리하지 못하고 장애로 대두된다. 그러므로 환경에의 의존성이 강한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그들의 행태적 요구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성이 필요하다. 지원성이란 노인이 주거 내에서 원활히 생활하는 데 환경이 갖추어야 하는 제반특성(이연숙, 박정아, 오찬옥, 1994)을 말하는 것이다. 즉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립적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주거환경을 지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시간강사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정교수, 이학박사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은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통제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되어 행동에 위축현상이 나타나므로(이경희 외, 1998) 노인의 주거환경에서는 노인의 정신적 심리적 인식처로서의 기능과 안전한 환경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심영 외, 1996). 또한 주택이 제공하는 편의의 정도가 노인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크며 나아가 주거환경의 쾌적도와 편리성은 노인의 심리적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은 보행능력, 시각적 능력, 청각적 능력, 공간통합능력이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감소하므로(최정신, 1990) 내부환경은 노인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외부환경은 집 주변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표현과 연결되는 정서적 공간으로서 주거환경의 중요한 부분은 차지하며 근린시설은 노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가운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제한되므로 이러한 신체적 변화상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거환경이 필요하다(이지혜, 1987).

따라서 노인들의 변해가는 신체적 욕구에 대처하지 못하는 일반주택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자립생활을 방해하는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그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노인 단독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환경 중 실내디자인 지원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노인의 주거환경 지원성

1) 주거환경 지원성

인간을 위해 환경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깃슨(Gibson, 1979)은 환경적 지원성이라 하였는데 환경에의 의존성이 강한 노인들에게는 이 환경적 지원성이 크게 계획되어야 한다. 노인의 주거계획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행태적 여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성이 필요하다.

머사(Murtha, 1976)는 디자인된 환경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여러측면에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환경이 갖추어야 하는 지원성의 체계를 행동의 용이성, 생리적 유지, 지각적 유지, 사회적 용이성의 네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면 행동의 용이성 차원과 생리적 유지의 차원에 대한 강조에서 사회적 용이성 차원에 대한 강조에 이르고 있다(Zeisel, 1977; Houwell, 1980; AIA Foundation, 1985).

한편, 노화는 '연속적 과정'으로서 노인은 그 이전 단계에 비해 점진적으로 개인적 능력 수준이 감소되는 상황에 놓이므로 주거공간에서 비롯되는 압력이 낮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압력이 높을 때 사회적 역할상실, 경제적 상태의 약화에서 오는 무력감 뿐만 아니라 신체적 기능저하에서 오는 의존으로, 노인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무능력자 또는 무용자로 여겨질 뿐 아니라 노인 스스로도 자신을 무능력자로 인식케 하여 사회적 의존과 무능력의 악순환 속에 갇히게 된다(Kuypers & Bengtson, 1973).

따라서 주거조건의 개선 및 사회복지적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 주거지원성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높인다는 것은 단순한 주거환경적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자존감, 통제력, 독립성의 향상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의 노인주거의 지원성 계획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것으로 김행신, 이영호(1998)는 노인의 주거지원성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설비, 활동지지, 공간구성, 사회심리 요구도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는데 안전설비 요구도, 활동지지요구도, 공간구성 요구도, 사회심리 요구도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지원성은 가족지원망, 지역사회 지원망이나 서비스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서울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권오정(1997)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자립적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된 항목은 욕실/부엌에 온수시설(95.1%), 욕실에 높이조절이 가능한 샤워기설치(86.1%), 야간보조등사용(78.2%), 조작하기 쉬운 창문/문잠금장치 설치(78.2%), 미끄럼방지용 바닥재 설치(76.2%) 등으로 나타났다. 김명숙(1994)은 난방 및 온수시설, 방음시설, 자동 흡 오토메이션, 비상시긴

급 연락시설 등을 포함한 내부 주거시설이 노인에게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내부공간구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수납공간, 주거관리의 편리성, 침실과 욕실의 밀접성 등을 지적하였고, 안전 시설에는 바닥재료의 미끄럼 방지, 욕실내의 손잡이 등에 대한 노인의 높은 요구를 밝혔다.

2) 주거환경 지원성에 관한 연구

노인의 주거환경 지원성에 관한 연구를 관련변인에 따라 사회·인구·경제적 특성, 주택특성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경제적 특성

현재 살고 있는 주거조절 및 요구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은 집단이 학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현재주거조절 실행빈도가 높고 미래의 주거조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권오정, 1997)는 보고가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내부공간 구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전명숙, 1994)는 결과와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요구와 주거내부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윤재웅 외, 1997)는 결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력이 높을수록 주택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주택의 규모나 소유형태를 선호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위치)를 선호한다(최명규, 모은경, 2000)는 보고도 있다. 한편 주택평가에 있어서는 학력이 초졸 이하의 계층에서는 주택노후화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고 학력이 고졸 이상의 계층에서는 주택규모 협소, 학력이 중졸계층에서는 사용상의 불만족이 높았다(최명규, 2000)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으로 앞으로 노인의 교육수준이 점점 높아진다고 볼 때, 이들은 주택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이들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차별화된 주거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주거조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현재 주거조절 실행빈도가 높다는 결과(권오정, 1997)가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수납공간부족에 대한 인식이 높고 주거설비수준에 대한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의지가 낮게 나타났다(최명규, 2000)는 결과가 있다. 성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주거환

경 선호도 연구에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주택내부환경에 대한 선호도와 교통 및 주변환경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정원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다(최정신, 1990; 전명숙 외, 1992; 윤재웅 외, 1997; 지은영 외, 1997)는 연구가 있다. 또한 내부환경 중 여성이 남성보다 내부공간구성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경필 외, 1995; 지은영 외, 1997)는 보고가 있다. 주거지 선정시 남자의 경우 주변편의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여자의 경우 주거지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한다(최명규, 모은경, 2000).

연령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조절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은 노인이 연령이 높은 노인에 비해 현재 주거조절을 많이 실행하고 있다는 보고(권오정, 1997)와 연령이 65세-69세 계층에서 주택의 수납공간의 부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최명규, 2000). 연령이 낮을수록 공간구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김행신·이영호; 1998)는 결과로 볼 때, 연령이 낮을수록 주거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선정시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의 질을,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규모를 선호한다(최명규, 모은경, 2000)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상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앞으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을 위한 주거환경계획시 주택의 질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지위가 높을수록 주거지원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요구도에 있어서는 안전설비에 대한 요구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공간구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김행신, 이영호, 1998).

Streib과 Beck(1980)는 건강이 노인의 주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으며 특히 혼자사는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은 자신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주거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노인의 건강이 좋을수록 주택의 안전설비에 대한 요구도가 낮게 나타났고 공간구성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김행신 외, 1998)는 결과가 있다.

(2) 주택 특성

주택규모에 있어서는 주택의 규모가 큰 집단이 작은 집단에 비해 주거조절 실행의 빈도가 높았다(권

오정, 1997)는 보고가 있다. 주거지원성에 대한 요구도에 있어서는 주택규모가 클수록 넓은 공간, 많은 방, 독립된 실 등에 대한 욕구, 사회심리적인 요구도가 높았고, 안전설비에 대한 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다(김행신·이영호, 1998)는 결과가 있다. 이와는 상반된 연구로 주택의 규모가 클수록 안전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크다는 결과가 있으며, 주택규모가 클수록 자녀·친척 거주 근접성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지은영 외, 1997)는 보고가 있다.

주택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주거환경 선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단독주택에 사는 거주자보다 내부공간 구성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아파트 거주자의 선호도가 가장 컸다(전명숙, 1994)는 보고가 있으며 이와 비슷한 결과로 집합주택 거주자일수록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요구와 주거내부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재웅 외, 1997)는 연구가 있다. 한편,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집합주택 거주노인보다 정원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지은영 외, 1997)고 한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수납공간과 불박이장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지각하였다(지은영 외, 1997). 주택유형이 2층 이상 단독주택인 경우가 다른주택유형 보다 미래의 주거조절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권오정, 1997)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단독주택 거주자가 집합주택 거주자보다 주택의 노후화나 사용상의 불편에 대해 많이 호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의지가 상대적으로 높다(최명규, 2000)는 결과가 나타났다.

3.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표집

조사대상은 광주시의 시설주거나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주거에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 또는 부부로만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제한하였다.

광주광역시를 행정구역상의 북구, 남구, 동구, 서구, 광산구 등의 다섯 층으로 나누고, 각 구에 분포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참고로 하여 북

구 58부, 서구 34부, 남구 38부, 동구 30부, 광산구 40부 등 총 200부를 할당표집한 후 각 구별로 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두 개의 동을 선정하고 최종 표집지역인 동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조사 희망자에 한하여 임의 표집하였다. 조사과정은 예비조사와 본조사¹⁾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노인단체대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상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을 통해 조사원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도구의 문항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실내디자인 지원성

실내디자인 지원성은 주택에서 살고 있는 노인의 다양한 행태적 여건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를 분석하기 위해 머사(Murtha)의 지원성의 4범주²⁾를 참고로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구두로 질문하여 직접 기입하였으며 '지원성 요구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필요하다'는 5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생활용품 및 보조물품

선행연구(권오정, 1997)에서 사용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생활용품은 노후의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요소로서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1)· 예비조사: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2002년 6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조사원이 직접방문하여 주거상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와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법을 병행하였음.

· 본조사: 2002년 8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2-3명을 조원으로 하는 10개조로 구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을 통해 조사원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였음.

2)· 행동의 용이성: 주어인 환경에서 사용자가 여러 행동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성.

· 생리적 유지: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의 생리적, 생물학적 쾌적성이나 건강을 지속되게 해주는 지원성.

· 지각적 유지: 직접적으로 심리적 쾌적감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는 행동과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행태 및 그것에 내재하는 의미가 사용자에게 적절히 전달되는 지원성.

· 사회적 용이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여 바람직한 수준까지 촉진시키는 지원성.

이연숙 교수연구실, 「노인주택 실내디자인 지침」, 1993.

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품으로 리모트 콘트롤용 TV, 전자레인지, 에어컨, 무선전화기, 보조난방기구 등으로 구성하였다. 보조물품은 노인의 쇠퇴되어가는 기능의 보완 및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숫자가 큰 전화기, 벨소리가 큰 전화기, 숫자가 큰 시계, 숫자가 큰 달력, 화재/가스 경보장치, 긴급통보버튼 등으로 하였다. 각 문항은 ‘예’ 또는 ‘아니오’로 구성하였으며, 조사가원이 직접 확인 후 체크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Windows용 SPSS/PC+ 10.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I. 조사결과 및 해석

1. 노인단독세대의 일반적 특성

노인단독세대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개인적 특성과 주택 특성 등에 조사하였다.

1) 노인단독세대의 개인적 특성

노인단독세대의 개인적 특성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39%, 여성이 61%로 여성이 많았다. 연령은 65-70세 미만이 54%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무학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21-50만원 이하가 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단독세대의 현재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라고 한 경우가 전체의 40.5%로 가장 많았다.

2) 노인단독세대의 주택 특성

노인단독세대의 주택 특성으로는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의 소유상태, 현 주택의 거주기간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분포는 <표 2>와 같다.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 49.5%, 집합주택이 50.5%로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다. 조사대상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크기는 20-30평 미만이 37.5%로 가장 많았고, 10-20평 미만이 34%, 30평 이상이 21%, 10평 미만이 7.5%이며, 평균 21.6평이었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62.5%로 가장 많았고, 전세가 22%, 월세 및 기타가 각각 12.5%, 3%로 나타나 자가소유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거주한 기간은 10-15년 미만이 28%, 5-10년 미만이 27%, 5년 미만이 19.5%, 20년 이상이 15%, 15-20년 미만이 9.5%순이었다.

표 1. 노인단독세대의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78	39
	여	122	61
	계	200	100
연령	65세 미만	3	2
	65-70세 미만	108	54
	70-75세 미만	47	23
	75-80세 미만	18	9
	80세 이상	24	12
	계	200	100
월평균 소득	20만원 이하	30	15
	21-50만원 이하	82	41
	51-80만원 이하	47	23
	81-100만원 이하	30	15
	110만원 이상	11	6
	계	200	100
가구 형태	노인부부가구	101	51
	노인독신가구	99	49
	계	200	100
교육 수준	무학	67	34
	초등학교 졸업	60	30
	중학교 졸업	34	16
	고등학교 졸업	27	14
	대학교 졸업	12	6
	계	200	100
건강 상태	아주 건강함	10	5
	건강한 편	71	35
	보통임	69	34
	나쁜편	45	23
	아주 나쁜편	5	3
	계	200	100

2.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 지원성에 대한 요구도

노인단독세대의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 지원성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머사의 4범주(행동의 용이성, 생리적 유지, 지각적 유지, 사회적 용이성)를 참조하여 ‘매우 필요하다’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현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 지원성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분포는 <표 3>과 같다.

조사결과 실내디자인 지원성 요구도의 전체 평균은 3.55점으로 대체적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차원별로 지원성 요구도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

표 2. 노인단독세대의 주택 특성

	구 분	빈도	백분율
주택유형	단독주택	99	49
	집합주택	101	51
	계	200	100
현 주택의 거주기간	5년 미만	39	20
	5-10년 미만	54	27
	10-15년 미만	58	29
	15-20년 미만	19	9
	20년 이상	30	15
	계	200	100
주택규모 (평균:21.6평)	10평 미만	15	8
	10-20평 미만	68	34
	20-30평 미만	75	37
	30평 이상	42	21
	계	200	100
주택소유형태	자 가	125	63
	전 세	44	22
	월 세	25	12
	기 타	6	3
	계	200	100

보면 '생리적 유지'에 대한 요구도가 3.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용이성' 3.56점이었으며 '행동의 용이성'과 '지각적 유지'가 3.4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리적 유지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노화와 함께 점점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됨에 따라 자신감이 적어지고 환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점차 커지는 것과 관련하여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생리적 차원에 대한 강한 요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위차원별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순서대로 살펴보면,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생리적 유지차원에서는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로 사용'에 대한 요구도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문항에서 요구도가 가장 높은 내용이었다. 그 다음으로 '비상벨 설치', '충분한 일조와 통풍확보',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게 처리된 가구사용', '양변기에 안전손잡이설치', '욕조에 안전손잡이 설치', '집안내에 불필요한 단차나 경사제거'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노인들은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신체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요구가 그 무엇보다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용이성 차원에서는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좋은 전망'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러한 점에서 벗어지는 외로움을 주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노인들의 취미생활을 위한 조경공간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노인들이 이웃과의 교류를 안전하고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행동의 용이성 차원에서는 '단순기능의 가전제품'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잡기 쉽고 열기 쉬운 창문/문손잡이설치', '물건 나르기 편하기 바퀴달린 웨건 사용', '적절한 수납장의 높이' 등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활동이 보다 원활하고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가구의 사용이 노인의 신체적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각적 유지차원에서는 '작업공간(부엌), 욕실 등의 충분한 조명'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3. 생활용품 및 보조물품에 대한 요구도

생활용품 및 보조물품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1, 2>와 같다. 생활용품과 보조물품에 대한 요구도의 경향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생활용품보다는 보조물품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사용실태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빈도가 높았지만 보조물품에 대한 사용빈도는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생활용품에 대한 요구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리모트 컨트롤용 TV'(89%)였고, 그 다음으로 '앞면에 조절장치 레인지'(82.5%), '전자레인지'(75%) 순이었다. 다음으로 보조물품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0% 이상의 높은 요구도가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숫자가 큰 전화기'(94.5%)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숫자가 큰 달력'(89%), '숫자가 큰시계'(86%), '화재/가스 경

<표 3> 현 주거공간에 대한 실내디자인 지원성 요구도의 경향(N=200)

	문항	평균(a)	
행동의 용이성	단순기능의 가전제품	3.70	●
	잡기쉽고 열기쉬운 창문/문손잡이 설치	3.67	●
	불건나르기 편하게 바퀴달린 웨건사용	3.62	●
	적절한 수납장의 높이	3.62	●
	손잡이가 잡기에 크고 편한 가구사용	3.60	●
	부엌 작업대(싱크대, 조리대, 수납장 등)의 높이조절	3.53	
	활동이 편리하도록 각실의 가구재배치	3.49	
	불박이장과 수납시설 증가	3.42	
	보다 넓은 공간	3.30	
	입식으로 계획된 침실	3.03	
	화장실 수의 증가	2.98	
	평균	3.45	
생리적 유지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료 사용	4.01	●
	비상벨 설치	3.79	●
	충분한 일조와 통풍확보	3.76	●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게 처리된 가구사용	3.70	●
	양변기에 안전손잡이 설치	3.69	●
	집안내에 불필요한 단차나 경사제거	3.69	●
	욕조에 안전손잡이 설치	3.68	●
	난방 및 습도조절을 위한 시설계획	3.64	●
	평균	3.74	
지각적 유지	작업공간(부엌)의 충분한 조명	3.57	●
	욕실의 조명	3.52	
	눈부심을 막기위해 창 주위에 색처리 및 커튼, 블라인드 설치	3.47	
	사물이 쉽게 인지되도록 생활용품에 색채대비 이용	3.35	
	전체적인 실내에 밝고 차분한 색채 사용	3.34	
	평균	3.45	
사회적 용이성	이웃과의 교류용이	3.75	●
	좋은 전망	3.68	●
	방음시설	3.53	
	정원과 꽃밭	3.50	
	거실, 현관, 부엌등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욕실의 프라이버시 보호	3.45	
	거실, 현관, 부엌등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침실의 프라이버시 보호	3.44	
	평균	3.55	

*5점 리커트의 평균점수 ●: 전체 평균점수(3.55점)보다 점수가 높은 문항

보장치'(85%),'벨소리가 큰 전화기'(89%) 순이었다.

4. 실내디자인 지원성 요구도에 대한 배경 특성의 독립적인 영향력

본 연구에서 설정한 노인단독세대의 배경특성이 실내디자인 지원성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적으로 나온 변인들인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사고경험, 주택 소유상태 등을 함께 구성하여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5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첫째, 행동의 용이성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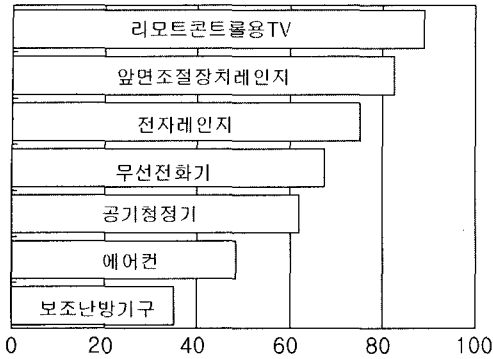


그림 1. 생활용품 요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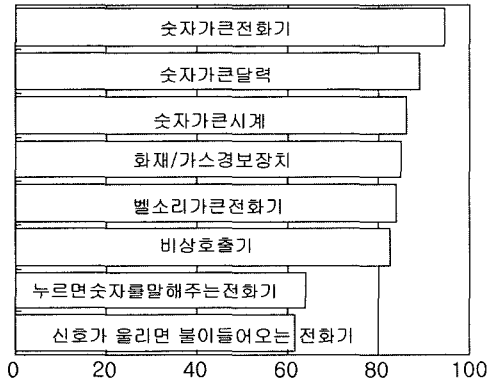


그림 2. 보조물품 요구도 (%)

펴본 결과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사고경험 등 이들 배경변인 중에서 교육수준($\beta=.17$), 건강상태($\beta=.16$) 순으로 행동의 용이성에 대한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산 설명력은 9%였다. 즉,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동의 용이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생리적 유지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사고경험($\beta=.16$), 주택소유형태($\beta=.15$)순으로 생리적 유지에 대한 요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산 설명력은 5%였다. 즉, 사고경험이 많은 노인일수록, 타가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자가에 거주하는 노인이 생리적 유지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지각적 유지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건강상태($\beta=.14$), 교육수준($\beta=.12$)순으로 지각적 유지에 대한 요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산 설명력은 8%였다. 즉,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각적 유지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사회적 용이성의 지원성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건강상태($\beta=.18$), 교육수준($\beta=.17$), 연령($\beta=.17$)순으로 사회적 용이성에 대한 요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산 설명력은 18%였다.

다섯째, 전체 실내디자인 지원성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beta=.17$), 교육수준($\beta=.15$)순으로 전체 실내디자인 지원성에 대한 요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표 4. 실내디자인 지원성 요구도에 대한 회귀분석 표

개 인 특 성	행동의용이성	생리적유지		지각적유지		사회적용이성		전체지원성		
		β	()	β	()	β	()	β	()	
연령	2.4	(.02)	-5.7	(-.00)	-9.7	(-.09)	-1.5*	(-.17)	-5.8	(-.07)
교육수준	5.9*	(.17)	2.0	(.05)	5.2*	(.12)	6.3*	(.17)	4.9*	(.15)
건강상태	.1*	(.16)	7.9	(.12)	.1*	(.14)	.1**	(.18)	.1*	(.17)
사고경험 ^{a)}	2.3	(.13)	3.0*	(.16)	7.0	(.03)	1.8	(.10)	1.9	(.12)
주택 특성										
타가D	-5.7	(-.05)	-.1*	(-.15)	-4.5	(-.03)	-7.8	(-.06)	-7.8	(-.07)
상수	2.79***		3.46***		3.72***		4.17***		3.54***	
R2	.09		.05		.08		.18		.12	

* $p < .05$ ** $p < .01$ *** $p < .001$ ()은 표준화된 회귀계수.

* 주택소유형태는 0:자가, 1: 타가

a) : 사고경험은 0= '안전사고 경험이 없다', 1= '안전사고 경험이 있다' 로 정의하였으며, 5가지 종류의 안전사고 발생경험을 합산한 점수는 0~5점까지 분포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사고 발생경험이 많음.

체 분산 설명력은 12%였다. 즉,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실내디자인 지원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II. 결 론

노인에게 있어서 주거환경은 생활전반이 펼쳐지는 행태적 환경으로서, 일반성인과는 다른 노인 행태적 요구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에게는 이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특성들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가노인 단독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환경 중 실내디자인 지원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요구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계획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행동의 용이성, 생리적 유지, 지각적 유지, 사회적 용이성 등의 실내디자인 지원성 요구도의 네 가지 하위차원 중에서 ‘생리적 유지’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용이성’, ‘행동의 용이성’, ‘지각적 유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리적 유지에 대한 요구도는 노화와 함께 점점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자신감이 적어지고 환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생리적 차원에 대한 강한 요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실내디자인 지원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문희정, 김미희, 2004)에서는 노인들이 다른 차원보다 생리적 유지차원에 대해 더 낮게 평가하였는데 지원성 요구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 특히 이차원에서 그 결핍의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단독세대를 위한 주택을 개조하거나 계획할 경우,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용이성 차원에서는 ‘이웃과의 교류’, ‘좋은 전망’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간배치

면에서 노인들이 외부와의 교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초를 가꿀 수 있는 조정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요구도에서는 연령이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배경변인에 따른 가장 큰 차이변화를 보인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연령이 젊을 수록 노년기 중에서도 주택에서의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교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특히 주거의 질적 측면인 사회적 용이성차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행동의 용이성 차원에서는 활동이 보다 원활하고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가구나 제품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각적 유지 차원에서는 작업공간(부엌)과 욕실의 조명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숫자가 큰 전화기’, ‘숫자가 큰 달력’, ‘숫자가 큰 시계’, ‘화재가스 경보장치’, ‘벨소리가 큰 전화기’ 등으로 보조물품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이는 노인이 노령화에 따른 신체적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노인관련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노인의 지원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교육수준과 건강상태가 실내디자인 지원성 요구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동일한 주거환경이라도 건강상태에 따라 지원성의 정도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며 특히, 건강상태가 좋고 교육수준이 높은 특성을 지닌 노인은 이와 상반된 특성을 가진 노인보다는 현실인 여건이 좋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고 주택에서의 문제점을 더 빨리 인식하므로 주택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이러한 특성을 지닌 노인이 주택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개선의 지가 강하다고 생각되므로 지역사회 혹은 관련기관

이나 단체를 통해 기존주택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디자인을 조정하는 등 노인의 주거지원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다른 집단보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권오정(1997), 노인단독세대의 주거조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권 1호 pp.1-18.
2. 김행신·이영호(1998),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지원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8호 pp.59-67.
3. 문희정·김미희(2004), 재가노인 단독세대의 주택내 안전사고 실태 및 실내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 주거학회지, 14권 1호.
4. 심영 외(1996), 노인복지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 단독가구의 생활환경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pp.1-19.
5. 이경희 외(1998), 노인의 주거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인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1호, pp.151-169.
6. 이연숙 교수연구실(1993), 「노인주택 실내디자인 지침」, 경춘사.
7. 이연숙·박정아·오찬옥(1994), 노인단독가구의 환경적 지원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4권 1호, pp.84-94.
8. 윤재용·고경필(1997), 중년층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 요인이 노후 주거환경 요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권 2호, pp. 283-295.
9. 전명숙 외(1994), 노인주거계획에 관한 이론적 접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6호, pp.15-21.
10. 지은영·고정자(1997), 연령계층별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5권 2호, pp.297 -307.
11. 최명규·모은경(2000), 노년기 상황별 주요구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제9집, pp.41-52.
12. AIA Foundation(1985), Design for Aging: An Architect's Guide, Washington. D. C.: The AIA Press Publisher.
13. Houwell. S. C.(1980), Designing for Aging; Patterns of Use. Cambridge .M. A.: The MIT Press.
14. Kamerman, S. B. & Kahn, A. J. ed.(1978),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N.Y. : Columbia University Press.
15. Golant, S.M(1984). The effect of residential and activity behaviors on old people's environmental experiences. In B. Altman, W. Powell. & G. Woldwill(Eds.) Elderly People and the Environment. N.Y : Plenum.
16. Murtha, D. M.(1976). Dimensions of User Benefit. Washington, D.C.;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

(接受: 2004. 4. 27)